



교육선교소식



제71차 여름연찬회를 맞이하며

[그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욥38:4)]

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종화 장로

샬롬!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인 학교는 1학기 업무를 마무리하느라 무척 분주합니다. 지난 학기를 돌아보면 국가와 사회, 교육계에 커다란 사건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71차 여름연찬회가 다가옵니다. 짧은 방학기간에 할 일들이 너무도 많지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 인정 받았던 욥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선히 여기시나이까?(욥10:3)”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욥38:4)” 절망, 슬픔과 실패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주님 통치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아담을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창3:9)”고 부르심은 아담에게 기회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우리의 걸어 온 길을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 기독교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순수하고, 진실할 때는 임종의 순간, 이별의 시간이라 합니다. 주님 겻세마네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26:39)”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최후의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당부하셨던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요21:17)”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주함을 변명하지 말고, 사명과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가르쳐야 하고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주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철학과 이념, 문화사조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1~32)”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말보다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생명력이 없고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정의로운 신앙인을 찾기가 그토록 어렵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품고 주님 심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어떤 고난이 와도 선한 싸움을 하며 세우신 교단에서 우리 사명을 다하십시오.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열리는 제71차 여름연찬회는 진정 성령 충만한 천국 축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간절한 부르심이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가서 제자 삼으라!(마28:19)”



중앙회 소식

2014 전국임원모임 개최(수원 조원교회)

일시 : 2014. 6. 14(토) 10:30~ 16:30

장소 : 수원 조원 감리교회(김청국 전임회장님 소속교회)

참석 : 각 지방지역회 회장 및 사무국장, 총무, 임원

먼거리 임에도 전국 각지에서 임원모임을 위하여 회장님들과 임원진 여러분이 달려와 주셨습니다. 행사를 주관하신 수원 지역회에서는 학교일로 바쁘신 중에도 헌신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맛있는 수원소갈비를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지역별 사례발표(울산, 경남, 수원)와 특강:고봉익 대표(TMD교육그룹) "진로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전도전략"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중앙회 임원수련회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1박 2일간의 우리 중앙회 임원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산재한 학교업무와 밀린 가사를 뒤로하고 마음의 준비로 무장된 17명의 임원들은 을왕리 해변의 아름다운 밤바다에서 불꽃놀이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5월 월례회를 겸한 이번 수련회에서 무엇보다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추억거리는 서로를 소개하며 우리 한교선의 발전을 위해 자정이 넘도록 얘기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중진들은 새벽 3시까지 앞으로 전국연찬회 운영이며 우리 선교회가 학교복음화를 넘어 우리 민족을 위한 소명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심도깊게 토의하는 모습을 보고선 "잠 좀 자고 내일 얘기합시다"란 외침에 앞서 잔잔한 감동이 있었다고 함이 옳을 것입니다.

이번 연찬회를 기획하고 많은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인천지방회 임역원과 교장선교회 임역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회비를 부담하면서 그 먼 곳까지 몸으로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의 임원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 전반기 임시이사회

1. 일시 : 7월 15일 16:00

2. 장소 : 중앙회 사무실

3. 참석인원 : 서정화 이사장 외 24명 참석

4. 내용

*1부 경건의 시간

인도 : 박해평 간사

기도 : 김종규 이사

말씀 : 이삭 목사(모퉁이돌선교회)

*2부 협의회

회원 점명 및 참석자 소개

서정화 이사장, 이윤식 회장 인사말씀

전반기 활동보고-박해평 간사

협의회 : 이사님들 소개와 신규이사 소개
한교선의 활동방안 위촉장수여





김해지역회 주관으로 2014 김해기독교사대회가 6월15일(주일) 김해 대민교회(김성득 목사)에서 열렸습니다. 김도명 목사(브니엘교회, 청바지 사역 모임 대표)께서 다니엘 12장3절 말씀을 가지고 '교사라서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50여명의 기독교사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석하여 교사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헌신을 각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회 회원들이 '주의 길을 가리(김석균 사/국)'를 특송하였고, 예배 후에는 정인규목사, 김도명 목사, 김해지역회 감경운 회장, 대민교회 교육위원장 진하봉 장로를 패널로 세워 학교와 교회와의 협력방안과 학교현장에서 기독교사들이 어떤 자세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27차 마산지역회 연찬회

일 시 : 2014. 6.26(목) 오후6:30
장 소 : 창신고등학교 영채플실(창신교회)
사 회 : 서명 회장 대표기도 : 안승기 목사
강 사 : 문찬호 목사(수영로교회 청소년팀장)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정황리에 개최되었어요.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기독교사들이 한데 모여 학교선교를 위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는 120명의 선생님들이 참석해주셨고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물도 드렸습니다.



서울지역 연합예배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연합예배가 도처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지방 지역회의 성장 발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 관악동작지역 : 5.19 pm5시 관광고 교장실
- * 서울 강남서초지역 : 5.20 pm6시 사랑의 교회
- * 서울 강동송파지역 : 5.20 pm5시 둔촌초 교장실
- * 서울 성동지역 : 5.26 pm6시 열린감리교회
- * 서울 강동지역 : 6.24 pm6시 서울둔촌초등학교 교장실(홍성숙교장)
- * 서울 강서지역 : 6.26 pm6시 서울영상고등학교 강당(김대원회장)
- * 서울 동작지역 : 6.26 pm6시 서울관광고등학교내하교교회(조금숙회장)
- * 교 장 선 교 회 : 5.30 pm6시 (한교선) 중앙회 사무실

- * 경기 이천지역 : 6.30 pm6시 (김영숙교장)
- * 수원지역 창립34주년 기념예배 : 5.19 수원 조원감리교회



경남 고성지역회 창립 예배

경남지역회(회장:이인규 장로) 임원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지원으로 고성지역회 창립예배가 4.29(화) 경남 고성군 농협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 날 회장에는 김철환 장로(삼산중교사), 부회장에는 오숙희 권사(동해초교감)가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 날 중앙회 이윤식 회장은 아침 일찍부터 멋진 화환을 보내 고성지역회 창립을 축하해주었습니다. 기념예배의 말씀은 고성제일교회 김종철 목사님이 해주셨으며 축사는 이인규 경남지방회장과 멀리 중앙회에서 박해평 사무총장님이 오셔서 학원복음화의 역군이 되어 민족복음화를 우리 세대에 달성할 수 있는 꿈을 갖게 해주어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기독교연합회장이신 목사님의 격려말씀에 이어 지산교회 문금정 사모님의 특송은 참석하신 이의 마음에 심금을 울려 복음 전하는 이의 마음에 힘과 소망을 심기에 참으로 좋은 찬양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수원지역 창립34주년 기념예배

사회 : 김영희 총무(상촌초교)
 기도 : 성창경 부회장(삼일공고)
 강사 : 서원석 목사님(조원교회담임)
 <본을 보이신 예수님(요13:12-17)>
 특송 : 예수향남기독교초등학교
 (예수 열방의 소망)

34년을 한결 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박연희 회장님의 끈질긴 기도와 관심 그리고 사랑. 임원들의 희생, 회원들의 전폭적인 기도와 합력이 어우러져 5월 19일 저녁7시 조원교회 2층 본당(예루살렘 성전)에서 서원석 목사님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폭발적인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람직한 리더십 발휘를 위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합시다.

※리더십 발휘- 살리는 말

이 윤 식
 한국교육자선교회 회장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리더십의 일반적인 정의는,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기술 및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은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과 ②조직 구성원들의 만족과 사기가 높아지는 것이 동시에 충족될 때 바람직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폭력배의 두목에게 리더십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조직 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했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불만족스러워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 조직을 흔히 볼 수 있다.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조직 구성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방법은 말이다. 말에는 ①각인력, ②견인력, ③성취력, ④치유력 등의 놀라운 힘이 있다.

첫째,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말한 내용이 조각칼로 새긴 듯이 뇌에 박히는 것이다. 뇌세포의 98퍼센트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들으면, 그 말이 뇌세포에 새겨져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 말에는 우리의 행동을 끌어가는 힘이 있다. 말한 내용은 뇌에 박히고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뇌에 전달되어 행동을 이끌게 된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말의 내용과 행동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즉 언행일치가 성립되는 것이다.

셋째,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말이 씨가 되어 싹이 나고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말한 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종이에 써서 그것을 되풀이해서 읽으면, 동기부여가 되고, 시간이 지나 그 일이 성취되어 간다고 한다.

넷째, 말에는 치유력이 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게 되면, 의기소침하고 낙심된 마음이 회복된다. 위로의 말을 듣게 되면, 슬프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좋은 말을 들음으로써 병이 치유되고 건강한 삶이 회복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미국 위스콘신 주의 한 병원에서는 불치의 암환자를 언어치료법으로 치료했다고 한다. 하루 세 차례 정도 10분씩 "난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내 몸에서 암 덩어리가 다 빠져 나갔다."라는 치료적 언어를 자신에게 말하게 했더니, 3주후에 완치되었다고 한다. 말에 놀라운 힘이 있다. 말 자체가 창조의 에너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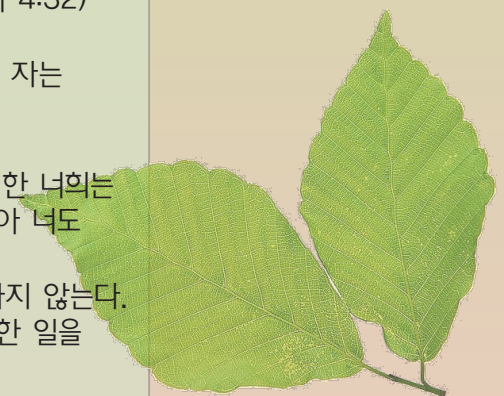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리더십 발휘를 위해 리더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죽이는 말’은 분위기 죽이는 말, 사기 죽이는 말, 의욕 죽이는 말, 기분 죽이는 말을 의미한다. ‘살리는 말’은 분위기 살리는 말, 사기 살리는 말, 의욕 살리는 말, 기분 살리는 말을 의미한다. ‘살리는 말’을 할 때,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과 조직 구성원들의 만족과 사기가 높아지는 것을 동시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리더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 모두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알려 주는 좋은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실려 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우리 모두를 엄중히 깨우치고 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 20-21).

우리 모두는 특히 리더는 말을 할 때,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좋은 대화법을 사용하여, 우리의 말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①각인력, ②견인력, ③성취력, ④치유력 등의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표> 마음에 새겨 둘 만한 10가지 대화법 (출처: 성경)

- ①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13)
- ② 말을 더디 하고, 먼저 생각하며, 서둘러 말하지 아니한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잠언 21:23)
- ③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야고보서 1:19)
- ④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말한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서 4:25)
- ⑤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잠언 20:3)
- ⑥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꾸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언 15:1)
- ⑦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에베소서 4:32)
- ⑧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잠언 10:19)
- ⑨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갈라디아서 6:1)
- ⑩ 누가 말로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면 똑같이 대꾸하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로마서 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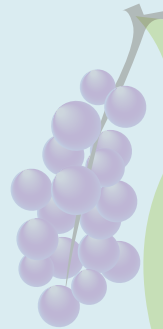




제71차 전국여름연찬회 안내

일자 : 2014.08.04(월) - 06(수) (2박3일)
장소 : 동서대학교 냉정캠퍼스 소향아트홀
주제 : 가서 제자 삼으라(마 28:19)

성경,찬송,개인준비물+개인물컵,
얇은이불,(에어)베개 지참



1년 농사는 꽃이나 곡식을 심고 10년 농사는 산에
나무를 심으며 100년 농사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나무를 심을 때도 세 나무
이상을 심으라고 한다. 하나는 그늘을 위해,
하나는 열매를 위해, 또 하나는 아름다움을 위해서다.
(위로만 큰 나무는 그늘을 만들지 못하고
홀로 서있는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 / 후한서)
란 말도 나무와 인간 도리를 비교한 말이다.
-김형태 장로님의 글 중에서-

♥[기드온300후원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신 분들

한국교육자선교회 중앙회는 회원들이 내는 회비, 임원과 이사
들이 내는 회비, 세운모임으로부터 받는 후원금, 교회들로부터
받는 후원금, 지방회가 내는 상회비로

- 행사비 (겨울연찬회 주관, 여름연찬회 지원, 지방회·지역회
순회 방문 후원 등),
- 인쇄비 (회보 [사랑의 교육] 인쇄, 소식지 제작, 전도 책자,
선교회 리플렛 인쇄 등),
- 회의비 (월례회, 이사회, 임원 기도회, 지역회 연합 모임 등),
- 인건비 (사무총장 및 간사 인건비, 복지후생비 등),
- 운영비 (사무비, 통신우편비, 홈페이지 관리유지비, 도서신문
구독비, 경조비, 접대비 등),
- 관리비 (사무실관리비, 건물유지 분담금 등)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연간 3000만원 이상 정도의 예산 소요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하여 매월 만원 후원회원 300명 확보를 위
하여 [기드온300후원운동]을 전개하고자하오니 동참하여 주시
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별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라는 말씀에 따라, 한국교육자선교회 설립 역사
상 처음으로 "주는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드온300후원운
동]의 십일조 즉 매월 30만원을 [북한교육자선교회] 설립을 준비
기도하면서, 탈북교육자 관련 지원활동을 계획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드온300후원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고 매월
후원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편리하심). 한국교육자선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동참
을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6월 후원자: 감경운 강경천 강윤명 고재욱 권경민
권덕순 권유순 기성임 김경자 김구자 김규영 김기택
김기택 김남훈 김두영 김보열 김세영 김숙희 김영심
김영주 김영희 김윤명 김인숙 김지영 김정국 김준자
김행자 김향숙 김형태 남명순 남상욱 동주김영숙 류길순
문석관 박경숙 박경자 박대덕 박동국 박연희 박예연
박정숙 박정화 박정의 박창대 백순자 서보연 서현석
성기옥 손경란 손옥희 손효숙 송미림 신미선 신서영
신서운 박공녀 신명민 신영옥 신용호 심상백 안 민
안 인 양금선 양미정 양점선 여성애 오국진 윤경운
이 은 이경희 이명호 이미지 이봉운 이영규 이윤식
이장순 이정희 이종식 이종호 이진영 이질례 이태세
이혜순 이효신 장양순 장원동 전 오 전상조 정순화
정태옥 조경자 조남호 조만영 조소연 조점순 조점순
조정자 조정희 주영진 진애경 차재용 천성호 최병후
최홍상 포항김영주 한양섭 한정숙 한종숙 홍성범 황유숙
구로동교회 동대문교회 서교동교회 세운모임 수원지역회
이사회 이순환합선설 인천지방회 창덕제일교회 창천리교회

기드온 후원자(5월-6월):

고상경 고재욱 기성임 김명순 김서휘 김영심 김익도
김정숙 김중대 김지영 김태일 나영례 남경혜 박은희
박혜평 백봉현 서 명 서운주 서정화 설희현 신규철
안보혜 안성애 안순희 안인숙 양효숙 엄정옥 오미라
우상길 윤종남 이미복 이성태 이옥선 이윤식 이인규
이혜경 이혜자 장상수 정영희 차동혁 차서린 차서현
차윤선 차윤희 차재연 최 주 최복만 최성림 하미순
황영애

계좌번호(예금주:박해평 연찬회 국민은행:008601-04-085967)
Tel : (02) 744-1330 Fax : (02) 764-1483
E-mail : kceanet@naver.com www.kcea.net